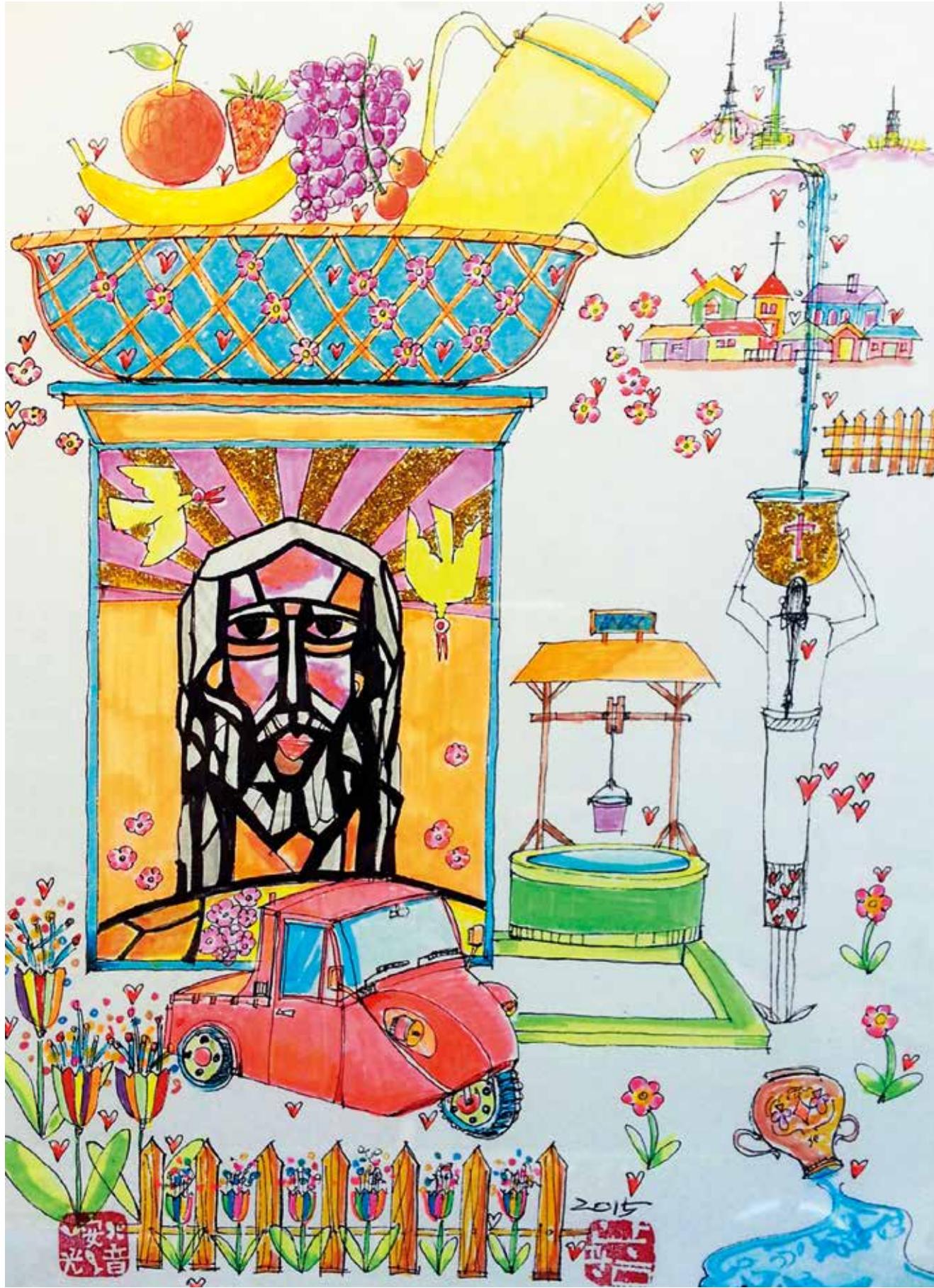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세브란스병원



사랑의 빛을 은혜의 나눔으로 이어갈 길을 찾는 탐족자, 안신기 교수
무지외반증, 못생긴 발보다 더 큰 문제는 극심한 통증

2020 DECEMBER

VOL.215



최고의 의술과 따뜻한 환대, 감동이었네

글 쓴야(Thanya Techapichetvanich) **포토그래퍼** 최재인

세브란스병원에서
연수받는 동안 내게 남은
최고의 기억은 세브란스
사람들이 보여준 따듯한
환대다.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앞선 지식을
습득했을 뿐만 아니라,
세브란스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멋진 경험을
했고, 진짜 멋진
피부과 팀의 일원이 되는
기쁨을 누렸다.

세브란스병원과의 인연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태국의 우리 병원에서 열린 피부과 국제학회(Dermatologic & Aesthetic Surgery International League)에서 세브란스 정기양 교수님을 처음 만났다. 당시 펠로우였던 나는 정기양 교수님의 수술 실력과 친절한 성품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독보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한국의 세브란스병원으로 날아가 잘 훈련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때의 소망을 지금 이루고 있는 셈이다. 지금 나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좀 더 다양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고도의 모즈 미세도식 술기와 재건 술기를 집중 연수하고 있다. 이수술은 양성 및 악성 피부종양, 편평세포암, 악성흑색종, 희귀 피부악성종양 등에 적용할 수 있다. 그 외에 다양한 흉터 관리와 레이저치료 등도 배우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우수한 교육 환경,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다학제 진료, 혁신적인 의료기술, 양질의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등을 두루 갖추고 있는 선도적인 의료기관이다. 세브란스병원은 또한 환자들을 위한 더 나은 치유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하고 있다. 본관 6층 옥상공원과 우리라운지를 보며 나는 크게 감동했고, 정말 세브란스병원이 환자의 온전한 치유와 행복을 위해 통합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세브란스병원에 있는 동안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입었다. 무엇보다 정기양 교수님의 조언, 격려, 지속적인 지지에 깊이 감사드린다. 피부과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특히 상처치료 전문간호사 남경애 선생님과 펠로우 이설희 선생님은 연수 기간 내내 잊을 수 없는 배려를 보여주셨다. 아울러 세브란스아카데미팀은 언제나 빠른 회신과 지원으로 연수 기간 내내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정말 고마운 분들이다. 세브란스병원이 제공하는 이와 같은 탁월한 국제 연수 프로그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해외에 있는 더 많은 의사들이 세브란스를 방문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맛보게 될 것이다. 정말 최고의 병원이자, 최상의 연수 프로그램이다.

미래의 언젠가 또다시 세브란스병원에서 연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지방 흡입과 지방 이식을 배우고 싶다. 태국에는 아직 이 분야의 피부과 전문의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바라건대 태국의 우리 병원과 대학이 세브란스병원과 함께 연구하고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정말 좋겠다.



싼야(Thanya Techapichetvanich)

태국 방콕에 있는 마히돌대학교 시리라즈병원에서 피부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연수를 받았고, 다시 2020년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13개월 동안 연수를 받을 예정이다. 피부암 및 흉터 치료를 비롯해 모즈 미세도식 수술을 집중적으로 연수 중이다.